



2022 EMERiCs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아프리카-중동 권역

경계에 서서 김영빈

이스라엘에 있으나 국제법상 이스라엘이 아닐 수도 있는 곳. 복잡한 점령의 역사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여러 국경선 중, 1949년 가장 먼저 그어진 군사 분계선인 ‘그린 라인(Green Line)’ 밖에 있는 유대인 거주 지역. ‘하르 아다르(Har Adar)’, 이곳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위치한 유대인 정착촌이다.

2022년 1월 9일,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총리의 지시로 이스라엘이 외국인들의 단기 입국을 전면 허용하면서, 나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가족을 방문하고자 이스라엘에 왔다. 중동의 평화 프로세스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적용에 있어 가장 큰 논란거리이자 걸림돌이 되는 유대인 정착촌을 굳이 방문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녀가 벌써 1년 넘게 이곳에 거주 중이라 우연치 않게도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녀는 몇 년간 거주했던 예루살렘 시내 아파트의 월세가 많이 올라서, 재작년 예루살렘 생활을 정리하였다고 한다. 예루살렘과 가까우면서 월세가 저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물색하던 중, 이곳에 오랫동안 살아 온 직장동료의 추천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그래, 한국에서도 월세가 저렴한 동네가 있지. 월세를 아끼기 위해 학교 바로 앞보다

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월세 매물을 찾던 학부 시절이 생각났다.

하르 아다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치 군대의 초소 같은 곳을 지나야만 한다. 초소에는 거주자의 자동차를 확인하고, 바리케이드를 일일이 열어주는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철조망이 하르 아다르 전체를 빙 둘러 있다. 입구에서부터 양옆으로 뻗어가는 철조망을 보자니 이곳이 사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져야 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서안지구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다른 정착촌과 달리, 이곳은 ‘경계’에 있어서 훨씬 안전하다고 덧붙인다.

입구를 지나면 깨끗하게 정돈된 거주지역이 나온다. 나무가 많아서 초록빛을 띠는 거리 너머로 주황색 지붕과 상아색 벽돌로 마감된 집들이 줄지어 보인다. 지붕과 벽체의 색깔은 통일되었으나 집의 디자인은 같은 듯 다르다. 쓰레기 하나 없는 인도에는 조깅하면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주민들이 지나며 인사한다. 저렴한 월세에 비하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커뮤니티라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다. 마치 외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부촌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집에 차를 주차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 저녁 어스름에 밖으로 나왔다. 산 위에 있어서 그런지 공기가 아주 시원하다. 꽤 높은 곳에 있어서 길을 걷다 옆을 보면 주변 동네가 한눈에 보인다.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어서 옆 동네에도 전깃불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다. 잘 보니 주변 동네들은 주황색 지붕이 아닌 단색의 지붕이다. 알고 보니 이곳에서 보이는 거주지들은 모두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이다.

산책하면서 도로의 표지판과 사인을 살펴보았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다른 대도시들과는 다르게, 아랍어 병기 표기가 보이지 않았다. 물론 정착촌에 아

랍인들이 살 일은 거의 없어서였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는 봐주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읽혔다. 하르 아다르에 입장할 때 볼 수 있던 철조망이 물리적 방어선이라면, 아랍어가 보이지 않는 표지판은 심리적 방어선으로 느껴진다.

걷다 보니 여자친구의 집에서 서너 블록쯤 떨어져 있는 직장 동료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인사를 하러 가자고 그녀가 갑자기 초인종을 누른다. 갑작스러운 방문은 실례일 것 같았지만, 동료분은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직장 동료라고 소개받아 동년배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혼자 살고 계신 나이가 많은 할머니셨다. 노라 할머니, 본인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이 땅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주민등록번호가



하르 아다르에서 보이는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네 자릿수라고 한다. 등록번호가 네 자리라고 하니 여자친구가 깜짝 놀란다. 이스라엘의 번호 부여는 인구 등록 순서로 자릿수가 늘어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며, 살면서 네 자릿수 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덧붙인다. 할머니 가족은 이스라엘의 정식 인구가 1만 명이 되기도 전에 이곳에 정착한 것이다.

할머니는 이 국가가 생기기도 전에 홀로코스트를 피해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 독일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는 ‘슬픔의 역사’라고 설명하셨다. 단순히 땅을 뺏는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이 땅에 사는 양쪽 사람들의 슬픔이 너무 깊어져 왔다고 말한다.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당한 박탈과 핍박의 역사와 유럽에서 넘어온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 1세대가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일대일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4차에 걸친 전쟁 중에 할머니는 남편을 잃었다고 담담하게 덧붙였다.

하르 아다르의 좋은 점이 무엇이나고 묻자, 평화롭고 조용한, 안정적인 곳이라고 대답하셨다. 하지만 이내 얼굴이 조금 붉어지신다. 사실 여자친구를 이곳으로 오라고 추천하셨을 때만 해도 이곳은 평화로운 곳이었다고 한다. 이곳에 레몬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심은 큰 농장을 가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데, 농장을 관리하러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저녁이 되면 펜스 밖으로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몇 해 전, 팔레스타인 인부 한 명이 초소에 근무 중이던 유대인 경비원 두 명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몇 달 전 어느 비 오는 날, 메인 도로에서 흉기를 든 팔레스타인 사람이 행인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스라엘에서, 특히 이런 지역에 사는 것은 모순을 견디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산책하며 보이는 서안지구 아랍 동네가 살짝 슬퍼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이었을까.

걷다가 갑자기, 이슬람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기도 시간 전 쿠란 낭송 방송인 ‘아잔’이 들리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동네에서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방송을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멀리서 자그맣게 들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스피커가 터져라 주변 모든 동네의 모스크에서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길거리를 산책하던 나에게도 아잔 소리는 마치 서라운드 사운드처럼 생생하게 들려온다. 이슬람의 기도가 유대인 정착촌에 큰 목소리로 울려 퍼져 나간다. 그 순간, 이 소리가 내 생활권을 위협하는 것 처럼 느껴졌다.

이방인인 나조차,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느낄 정도로, 순간적으로 이곳에 내재되어 있는 긴장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선 하나로 남북한이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남쪽에

서 태어나 참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그나마 여기서 평화롭게 개 산책을 시키고, 저들보다 더 예쁜 주황 지붕 집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는 저들은 나쁘다고 단정하면서, 그들의 오랜 박탈과 아픔의 역사는 애써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정착촌에 사는 것이, 서울에서 월세가 저렴한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가볍게만 생각했던 내 의식에 큰 파도가 일렁였다. 그 어느 쪽 한 편의 시각으로 모든 역사를 정당화하기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너무 멀리 온 것만 같다.

2021년 6월, 이스라엘 정부가 구성될 때 사상 최초로 아랍 정당이 단독으로 연립 정부에 참여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랍 정당은 두 국가 해법 및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며, 이스라엘 아랍 시민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한다.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을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도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이러한 양측이 겪어 온 모순과 아픔을 씻어낼 만큼의 큰 파급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